

예탁결제원 나눔재단 코로나19 대응 긴급구호자금 지원



이명호 사장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지역에 긴급구호자금 3천만원을 지원했다. 이 자금은 이 지역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구호 물품 지원에 사용됐다.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은 예탁결제원이 나눔문화 확산과 따뜻한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 2009년 설립, 금융교육사업, 취약계층지원사업, 장학사업, 공익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재단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산시에 성금 전달

예탁결제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1억원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 분배돼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취약계층 지원 물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했다. 또 부산지역 내 자가격리자들의 생활 유지를 위해 1천만원 상당의 긴급구호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했다.

임원진, 코로나19 극복 위해 급여 30% 기부

예탁결제원 임원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급여의 30%를 기부했다. 해당 금액은 KSD나눔재단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사업에 지원됐다.

이명호 사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부산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동참

임원 및 부서장 약 50여명은 5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에 동참했다.

이명호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상생을 위한 자발적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참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참여자가 화훼농가로부터 꽃을 사들여 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후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탁결제원은 부산지역 화훼단지에서 사들인 꽃, 화분을 부산 남구 장애인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등 인근 복지시설과 대안학교에 전달했다.

이명호 사장은 “이 행사를 통해 어려운 화훼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꽃을 받는 분들께도 잠시나마 기쁨을 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